

News

'경제 타격' 이제부터인데...은행 대출 벌써 '이상기류'

데일리안

국내 4개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금액은 총 2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5,011억원)보다 9.8%(2,460억원) 증가... 개인보다는 기업 차주들이 빚을 갚는데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기업대출 연체 액수는 1조2,414억원에서 1조4,177억원으로 14.2% 확대...

중소 설비 담보대출 늘린다...은성수 "은행, 기간산업 지원"

매일경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와 설비를 담보로 한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뒤 이를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받는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도 확대...

은행, 손실난 해외펀드 선지급 '붓물'

매일경제

獨·美 등 해외펀드 판 금융사, 고객 불만 달래려 만기전 지급...원금 50% 미리 주고 만기정산...불완전판매 면피 위한 교육책 `고객 불만 달래기` 성격이 크지만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실적 배당형 투자 원칙`을 위배한 `금융 포플리즘`이란 지적도 제기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카카오뱅크, 비대면 강점 살려

뉴스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4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65억6,600만원 대비 181.3% 증가...제휴사 대출 추천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한 데다 지난 2월에는 NH투자증권 주식계좌개설 신청서비스 추가...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 이용

'코로나19 후폭풍'...보험사, 채권 인기 '뚝'

이데일리

그간 탄탄한 신용등급과 높은 금리를 갖추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최근 신용등급 하락 및 채권시장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상품 경쟁력이 낮아져...동양생명, 지난달 계획했던 3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하반기로 연기...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3월 이후 사실상 전무한 상황

한화생명, 해외투자 완화에 장기채 확대도 '파란불'

연합인포맥스

한화생명의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은 28.9%에 달해...외화유가증권 규모는 28조1천218억원으로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한화생명은 금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해외채권을 통해 듀레이션 매칭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

증권사 '크레딧 버블'...신평사 자본적정성 기준 보완하나

뉴스투데이

국내 신평사들은 신NCR에 구NCR 방식을 추가한 데 이어, 유동성 대응능력을 주요 평가요소로 삼으면서 증권사들의 크레딧 평가방식을 보완...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신NCR과 신평사들의 구NCR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장기적으로 구NCR을 고려한다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

정부, 투기판 된 '원유 ETN' 대책 이달 내놓는다

조선비즈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기존 투자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한국거래소가 ETN을 강제로 상장폐지시키고 청산 절차를 밟는 '자진청산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유동성공급자(LP)에 괴리율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